

남원시, 눈물겨운 인구늘리기
1965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
“눈에 띄는 실적 기대 어려움”

남원시는 23일 저출산·초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지역소멸 위기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고 적정인구 유지 및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인구 10만 달성’이라는 목표로 내고장 주소 찾기 운동을 비롯해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 청년 일자리창출, 귀농·귀촌 지원사업, 정주여건 개선 등 7개 분야 38건의 다각적인 지원시책이 제시됐다.
남원시는 1965년 최고 인구수(18만 7,965명)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지난해 말 기준 인구 8만4,188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원주 남원시장은 “인구감소 문제는 어느 한 부서에서 전담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당장 눈에 띄는 실적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전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남원시는 시민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모으고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남원시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우수 제안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는 저출산·초고령화로 인구감소 문제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정기인사 조직개편을 통해 담당 1명과 실무자 1명으로 구성된 인구정책담당을 신설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N치즈축제 10월 6일 팡파르

8m 초대형 피자 만들기
구준엽 야간치맥파티 등
참신·특색 ‘꿀잼 예고’

올해 가나진 추석연휴 기간을 겨냥해 열리는 제3회 임실N치즈축제가 참신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선보이며 관광객 몰이에 나선다.
임실군은 무려 10일간 이어지는 추석연휴의 마지막 4일인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임실테마파크와 치즈마을에서 임실N치즈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작년에 볼 수 없었던 색다른 프로그램을 기획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은 ‘웃어봐요! 치~즈~, 행복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해 21만명의 관광객을 넘어선 30만명을 목표로 임실N치즈축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들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임실치즈 생산 50년을 기념하는 해로, 어느 축제보다 뜻깊고 의미있는 축제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명절 연휴와 맞물려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8m 대



임실군은 무려 10일간 이어지는 추석연휴의 마지막 4일인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임실테마파크와 치즈마을에서 임실N치즈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형피자 만들기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유럽풍 코스프레 의상과 피치 캐릭터 의상 등을 입고 펼쳐지는 우유드림 행복드림 페어이드와 다함께 우유 나눠먹기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치즈와 함께 행복한 웃음이 있는 사진 컨테스트가 열리며, 축제기간 매일 치즈마을에서 1팀, 치즈테마파크에서 2팀 등 총 12팀을 선정해 각각 10만원 상당의 임실N치즈 선물세트를 증정한다.
올해에는 특히 야간프로그램인 야모르파티를 새롭게 진행한다. 치즈테마파크 시계탑 광장에서 6일부터

8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최고의 DJ와 함께 치즈와 맥주를 즐기는 EDM 댄스파티로 진행한다.
6일 밤에는 가수과 DJ로 전국의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구준엽이 직접 출연, 열정적이고 화려한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파티 참여를 위해서는 입장권(5천원)을 구입해야 하고 입장권 소지자에 대해서는 맥주를 무한 리필 제공한다.
또한 음주 예방을 위하여 축제가 종료되는 시간에 맞춰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전주까지 셔틀버스로 운행한다.
임실N치즈 유제품 판매장에서는

관광객의 지속 방문을 유도하고 치즈와 유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20%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치즈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 맛 볼 수 있는 기회와 낙농체험, 치즈체험 등도 함께 운영된다.
치즈마을에서는 치즈 낚시터와 물고기 우유주기, 치즈쿠키 만들기, 치즈케이크 만들기 등 어린이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심민 임실군수는 “명절들 잘 보내시고 가족들과 함께 치즈축제에 오셔서 임실 청정지역에서 자란 양소 한우고기도 맛있게 드시고, 치즈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도 저렴하게 구입하시길 바란다”며 “임실N치즈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참신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며, 천만송이 국화와 함께하는 행복한 추억을 남기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치즈·피자체험예약은 임실치즈마을(http://cheese.invl.org, 643-3700), 임실치즈테마파크(http://www.cheesepark.kr/ 063-643-2300)에서 할 수 있으며, 축제 관련사항은 임실N치즈축제홈페이지(http://www.invsfestival.com/ 063-643-39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 도통동 자치사랑방 재탄생
사업비 7200만원 투입 시설공사

남원시 도통동은 23일 이원주 남원시장을 비롯해 주요 내빈과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사랑방 리모델링 공사 준공식을 가졌다.
그동안 도통동 자치사랑방은 비효율적인 공간배치와 내부시설 노후화로 주민들이 다양한 자치사랑방 프로그램과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이에 도통동은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7,200만원을 투입, 약 한 달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새단장을 마쳤다. 이번 공사를 통해 새로운 공간 조성과 노후된 시설 교체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프로그램 수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문강현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리모델링 공사로 하반기에 신규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자치사랑방이 나눔과 소통의 장소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통동장은 “자치사랑방이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들의 어울림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엮어주는 사랑방이 돼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스포츠메카 입지 다지기 돌입

발빠른 마케팅 성과 특출
대한정구협 대형 대회 등
내년도 총 8개 유치 성공



순창군은 충북 옥천군에서 열린 대한정구협회 이사회에서 진행된 '2018년도 대한정구협회 주관대회' 개최지 심의·결정에서 4개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순창군이 대한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내년도 대형 정구대회 4개 등 발빠른 스포츠마케팅 전략으로 총 8개 정구대회 유치를 확정했다.
군은 최근 충북 옥천군에서 열린 대한정구협회 이사회에서 진행된 '2018년도 대한정구협회 주관대회' 개최지 심의·결정에서 4개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유치 확정된 대회는 2월에 진행되는 국가대표 선발전, 3월 협회장기 전국 정구대회, 6월 주니어국가대표 선발전, 11월 어르신 정구대회 4개 대회다. 이외에 한국여자연맹 주관 전국유소년 정구대회, 한국중고등학교정구연맹

주관 중고등학교 정구대회, 한국대학 정구연맹 주관 춘계 대학정구연맹전, 한국실업정구연맹 주관 동계 한국실업연맹전 등 군은 내년 정구대회 총 8개 대회를 유치를 확정했다.
특히 협회장기 전국 정구대회는 초·중·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동호인부가 참가하는 대회로 참가하는 임원 선수단 등이 1,500여명에 달하

는 대형 대회로 7일간 진행되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가대표 선발전은 제18회 아시안게임 정구종목에 출전할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만큼 일반부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 사전 적응 훈련차 순창을 대거 방문하는 부수적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 거는 기대 크다.
/순창=이양원 기자

옥천인재숙 리모델링 사업 ‘순항’

순창군, 공정률 40% 돌파

전국적 지역 인재육성의 산실이 되고 있는 순창 옥천인재숙이 50억원을 투자해 기숙동 증축 및 시설 리모델링과 인재육성 시스템의 다각화를 통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은 올해 50억을 투입해 기숙동 증축 및 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공정률 4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12월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내년이면 인재숙 학생들이 한층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지상 4층, 연면적 1,879.79㎡ 규모로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시설과 식당은 물론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체력 단련장, 회의실, 첨단 강의실 등을 갖추게 된다.
특히 군은 추진하는 기숙동이 원료

되던 화교 졸업생들의 취업을 향상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공무원 시험반 운영도 검토 중이다. 인재숙이 대학 입시를 넘어서 청년 취업까지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다. 순창에서 성장해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재숙이 지역발전을 책임질 수 있는 공직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순기능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기숙동 증축과 공무원시험반, 최근 성과를 내고 있는 사관학교반 운영이 옥천 인재숙의 제2의 대도약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옥천인재숙은 교육 문제로 지역을 떠나는 인구유출 문제를 막고 또 지역인재를 적극 육성해 지역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이다”면서 “인재숙 증축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을 갖고 세계속의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경관터널 포토존 인기

임실군 주요 명소에 자리한 경관터널이 색다른 추억을 남기는 포토존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임실을 소재 생활체육공원에 조롱박, 수세미, 약호박 등 5종의 작물로 꾸며진 150m 길이의 경관 터널은 무더운 여름 별을 피하는 이색 볼거리이다.
이곳은 제35차산 입소식과 퇴소식이 열리는 종합경기장과 군민 여가생활의 중심으로 떠오른 국민체육센터가 위치해 내방객과 지역민에게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제3회 임실N치즈축제'를 맞아 총 1.5km 구간에 3종의 코스모스를 식재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가 기대된다.
앞으로 호응 정도에 따라 오수 문화체육센터 등의 주요 관광지에 추가 파충할 계획이다. 섬진강 상류 오원천의 맑은 물과 기암절벽이 아우러진 멋진 풍경으로 사시사철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사선대에도 이처럼 경관터널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계절 아름다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 쾌적한 환경과 볼거리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관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